

정법(正法)과 수련

이 글 ‘무엇이 진정한 선(善)인가’는 정법(正法)과 수련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아주 명백히 말하였다. 대법제자는 정법 중에 있기에 과거의 개인수련과는 다르다. 무리한 상해(傷害)에 직면하거나 대법(大法)에 대한 박해에 직면하거나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진 불공정에 직면할 때, 예전의 개인수련처럼 그렇게 대하여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는 현재 정법시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개인의 집착과 잘못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악이 교란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수련 중이며 아직도 최후의 속인 마음이 있다. 문제가 나타나면 반드시 먼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만약 교란과 파괴임을 발견하면 실제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평화롭고 자비로우며 선량해야 한다(비록 이용당하는 사람이 늘 사상이 좋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좋지 못한 사상을 나타내는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사악이 사람을 이용할 때 사람 자신은 흔히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간의 사악 교란에 대해서

가 없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일부 사람은, 당신이 원만했다면 하늘로 날아올라 부처의 장엄한 형상을 나타내 보라. 연마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이 그래도 나의 제자인가? 수련인은 원만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수련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마(魔)는 아니지만 이미 마의 일을 하고 있다. 사부가 자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법 중에서 일체 생명의 길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원만했다고 자칭하는 이, 당신은 신불(神佛)의 위대한 법력(法力)을 충분히 갖췄는가?

또 어떤 사람은 사악하게도 “진정한 사부는 천상(天上)에 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사부와 결별해야 한다.”, “사부를 대신하여 몸에 맺힌 무슨 매듭을 풀어준다.”라고 한다. 리홍쯔(李洪志)는 오직 하나뿐이다. 나는 그 무슨 副元神(푸웬션)이 없으며 또한 속인의 삼혼 칠백(三魂七魄)이 없다. 내가 바로 주체(主體)이다. 나의 本體(번티) 속의 부동한 층차의 입자로 구성된 부동한 공간 중의 더욱 큰 데서 더욱 작은 데에 이르기까지 신체는 모두 인간 세상에 있는 나의 주체가 지휘하는 것이며, 인간 세상에 있는 나의 주체사상을 기준으로 한다. 법신은 내 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공신(功身)은 나의 끝없이 거대한 공(功)의 집합체이다. 인간 세상의 사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대법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련하는 사람도 아니며, 그 무슨 원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래의 사람들은 여전히 법을 얻을 것이고, 세상의 몇십억 사람들이 이번 법정인간(法正人間) 시기에 사악이 모조리 제거된 후를 기다려 법을 얻을 것이며 모두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이 『전법륜(轉法輪)』 책이다. 책을 훼손한 그런 사악과 나쁜 사람들이 지은 죄악은 너무나 커서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모든 층에서 사악과 나쁜 사람을 조종하여 대법(大法)과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끝 없이 층층이 모조리 소멸하는 고통 속에서 저지른 일체를 갚는 것이다. 그런 ‘전화서(轉化書)’에 주동적으로 서명했거나 연공하지 않겠다고 서면보증한 사람들은 이른바 “원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인간의 관념을 포기한다.”는 명분으로 진정한 집착을 덮어 감추고 있으며 심지어 대법(大法)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명후이왕을 비방한다. 그러한 구세력은, 한 대법(大法) 수련생이 집착 때문에 이 기간에 일단 대법(大法)을 수련하지 않겠다고 서면보증을 했다면 바로 그가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내심에서 우려나온 것이 아니고 강박으로 쓴 것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정법(正法) 속으로 들어온다면 마난(魔難)을 크게 하여 관(關)을 넘게 할 것이다. 비록 사부가 구세력의 배치를

주 : 2001년 7월 3일 사부님께서 구술하여 풀이하시고, 수련생이 기록하여 사부님의 동의를 거쳐 발표했다.

풀이 : 박(剝)과 복(復)은 두 괘(卦)의 이름이다. 벗겨짐(剝)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회복(復)된다. 또한,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된다(物極必反). 역사는 마치 구르는 바퀴처럼 앞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후과(後果)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모두 이번 정법을 위해 배치된 것이다.

“寰中自有承平日” 천하에 화평한 날 스스로 있으리니
 풀이 : 대법제자는 온갖 사악한 고향을 다 겪고 사악이 멸망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四海爲家孰主賓” 사해가 집인데 그 누가 주객이고
 풀이 : 1992년부터 사부가 나와서 법을 전했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사처(四處)에 법을 전하며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다시피 했다. 후반의 “그 누가 주객이고”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가를 은유한 것이다. 역사의 무대에서 누가 조역이고 누가 주역인가. 이번 인류의 문명은 모두 대법(大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대법(大法)을 위해 창립된 것이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일단 반면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과는 두려운 것이며 천만 년을 기다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대법(大法) 수련생이란 명의를 걸고 사오(邪悟)를 펴뜨리는 그러한 사람은 과거에 수련생이었든 아니었든 모두 대법(大法)을 파괴하는 마(魔)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실 대법(大法)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마난(魔難) 속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만약 사람이 끝장났다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또한 사람의 액운이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일체 세인과 생명을 구원하고자 생각한다. 사람들은 힘써 노력하지 않는바 집착을 덮어 감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오하고 있다. 당신 자신이 미래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포기할 것이다. 나는 집착이 없다.

대법제자로서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똑바로 알려야 하고, 사악을 폭로해야 하며, 이로써 대법(大法)을 수호해야 한다. 개인의 제고와 원만은 바로 이 과정 중에 있다. 이른바 전화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역시 속아 넘어간 사람인데 왜 되돌아 그들을 향하여 사악을 폭로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지 않는가? 나는 강제로 전화한 모든 수련생(전화를 위해 잡혀간 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들은 전화하는 일을 하는 사

람들에게 사악을 폭로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인과(因果) 관계를 말해 주기를 건의한다.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악이지 대법제자가 아니다.

李 洪 志

2001년 4월 10일

에法輪大法(파룬따파) 제자였다. 전국에 널리 퍼져 있으면서 모두法輪功(파룬궁) 배지를 달고 있어, 곳곳에서 대법(大法)法輪(파룬)도형을 볼 수 있었는데 모습이 마치 기묘한 꽃과 같았다. “봄은 주인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해 봄날에 박해 받는 대법제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사부와 만날 수 있음을 가리킨다.

“連宵風雨不須愁” 온 밤의 비바람 걱정해서 무엇하리
풀이 : 대법제자가 박해받는 것을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사악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마치 온 밤의 비바람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비바람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날은 곧 밝아진다.

“數點梅花天地春” 몇 송이 매화 꽃 천지가 봄이라
풀이 : 혹독한 겨울의 고함을 겪은 제자들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중국대륙에 널리 퍼져 있는데, 마치 눈서리(霜雪)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매화처럼 봄이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법정인간(法正人間)의 시기이다.

“欲將剝復問前因” 장차 박복이면 이전 까닭 물으리라

공악당의 표면형식을 이용해 권력을 통제하고 이로 인해 힘을 다하여 허구적으로 이른바 아주 좋은 형세인 듯 치장하는 것이다. 설령 가장 아름다운 가을빛(다시 말해 악당의 최후 시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가을빛은 자연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장안은 또한 중국의 수도를 가리키는데 무릇 중국을 가리킨다.

“火龍蟄起燕門秋” 화룡이 숨었다 일어나니 연문은 가을이요

풀이 : 중공악당은 천상의 가장 낮은 공간에서 붉은색 악룡(惡龍)을 표현형식으로 한다. 이 한 구절은 ‘6·4’ 때 학생과 민중들이 천안문에서 청원한 후 도살당한 사건을 은유하였다.

“原壁應難趙氏收” 원벽이 난을 당하니 조씨가 물러나네
풀이 : 원벽(原壁)은 무릇 오천 년 역사의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난(難)을 당한 것이다. 자오쯔양(趙紫陽)은 이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

“一院奇花春有主” 뜰 안의 기묘한 꽃 봄은 주인 있으니
풀이 : 1999년 7월 20일 이전에 중국대륙에서는 곳곳

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은 위력이 있다

사악은 삼계(三界) 내에서 인간 세상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소멸하였다. 그들은 이미 실패의 말로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다.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마음속에 집착이 있는 그러한 수련생들이다.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 할수록 사악은 전문적으로 이러한 수련생을 찾아 손을 쓴다. 대법(大法)이 인간 세상에서 박해받아 나타난 전반 형식은 이런 수련생들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박해 받는 엄중한 상황이 대량으로 나타나 조성된 것이기도 하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른바 전화(轉化)했고 악인을 도와 포악한 짓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그리하여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한 대법제자로서 무엇 때문에 박해를 감당할 때 사악한 자를 두려워하는가? 관건은 집착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극적으로 감당하지 말고 시시각각 정념(正念)으로 악인을 정시(正視)하라. 어떤 환경이든지 사악의 요구, 명령과 지시에 협조하지 말라.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한다면 환경은 이렇게 않을 것이다.

사실 일부 부동한 공간에서 공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

자와 각계 중생들은 줄곧 공능과 공력을 사용하여 대법(大法)을 파괴한 사악한 생명을 깨끗이 제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어떤 대법제자는 사악한 생명을 볼 때 法輪(파륜)과 대법 신통을 내보내 사악을 제거했고, 또 어떤 수련생은 세간에서 사람을 구타하는 흉수와 살인범에게 그가 한정된 시간 내에 응보를 받도록, 수일 내의 어느 시간에서든지 응보를 받도록 정하여 사악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나쁜 사람을 억제했다. 사실 대법제자 매 사람은 모두 능력이 있다. 단지 표면공간에서 표현되어 나오지 않아 공능이 없다고 여길 따름이다. 하지만 표면공간에서 표현될 수 있든지 없든지 진념(眞念)을 움직일 때는 모두 위력이 강대하다. 우리는 정법을 수련하기 때문에 선량한 생명과 세인에 대해서는 모두 애호하고 구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두 선(善)하게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조종하여 인류를 파괴하는 사악한 생명을 처리하는 것도 인류와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법(大法)은 널리 전해져 일체중생을 구도하고 있다. 그런 사악한, 완전히 더는 구할 수 없는 사악한 생명은 비록 제도될 수 없지만, 그들이 무절제하게 악한 짓을 하고 그리하여 대법(大法)과 수련생과 세상 사람을 박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악을 제거하는 것은 법을 바로잡는 것이며 또

“如棋世事局初殘” 바둑 같은 세상 판국 초국부터 쇠잔이요
 풀이 : 세상의 일은 예부터 한 판의 바둑과 같다 했는데, 한편은 공산국제사악연맹이요 한편은 자유사회체제이다. 공산사악국가 쪽에 대해 말한다면 10년 전에 이미 한 판의 쇠잔하는 국면이었다.

“共濟和衷卻大難” 서로 돕고 뜻 합하나 도리어 큰 난이네
 풀이 : 공산국제사악연맹은 철저히 해체된다. 90% 국가가 공산사악주의를 포기한다. 이것은 공산사당을 놓고 말한다면 정말로 큰 난(難)에 처한 것이다.

“豹死猶留皮一襲”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풀이 : 소련은 마치 한 마리 표범과도 같다. 공산악당(共產惡黨) 체계가 해체되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가죽을 남긴 것처럼 중국정부가 계승하게 했다. 이때의 중국 인민도 이미 공산사악주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만 중국 집권자가 악당의 형식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 함에 불과하다.

“最佳秋色在長安” 가장 아름다운 가을빛은 장안에 있도다
 풀이 : 중국 현재의 집권자에 대해 말한다면, 자신도 중공을 믿지 않는데, 그들의 아주 명확한 목적은 중

매화시 후 3단 해석

한 세인과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다.

李 洪 志

2001년 4월 24일

其八

如棋世事局初殘, 바둑 같은 세상 판국 초국부터 쇠잔이요,
共濟和衷卻太難. 서로 돕고 뜻 합하나 도리어 큰 난이네.
豹死猶留皮一襲,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最佳秋色在長安. 가장 아름다운 가을빛은 장안에 있도다.

其九

火龍蟄起燕門秋, 화룡이 숨었다 일어나니 연문은 가을이요,
原壁應難趙氏收. 원벽이 난을 당하니 조씨가 물러나네.
一院奇花春有主, 뜰 안의 기묘한 꽃 봄은 주인 있으니,
連宵風雨不須愁. 온 밤의 비바람 걱정해 무엇하리.

其十

數點梅花天地春, 몇 송이 매화 꽃 천지가 봄이라,
欲將剝復問前因. 장차 박복이면 이전 까닭 물으리라.
寰中自有承平日, 천하에 화평한 날 스스로 있으리니,
四海爲家孰主賓. 사해가 집인데 그 누가 주객인고.

제자의 위대함

李 洪 志

2001년 6월 23일

대법제자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수련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 대법이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정념(正念)으로 대법(大法)을 실증했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당신들이 거대한 난(難) 속에서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제자가 정법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다. 이지(理智)로 법을 실증하고, 지혜로 진상을 똑바로 알리며, 자비로 홍법(洪法)하고 세상 사람을 구도하는 위대한 장거(壯舉) 중에서, 매 한 사람의 대법제자가 원만의 길을 완벽히 걷고 있다. 역사적인 위대한 시각에 안정적인 매 한 걸음은 모두 빛나는 역사의 증거요, 비할 바 없는 위대한 위덕이다. 이 일체는 모두 우주의 역사 속에 기재될 것이다. 위대한 법, 위대한 시대는 가장 위대한 각자(覺者)를 육성하고 있다.

李 洪 志

2001년 5월 13일

다면 진정한 재화(災禍)가 곧 시작될 것이다. 현재 대법(大法)에 죄를 지은 모든 악인, 대법제자에 대한 이른바 사악한 고함 중에서 이용가치가 없는 자들은 이미 악보(惡報)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금부터 시작해 대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장 나쁘고 사악한 무리는 최후 한 걸음까지 이용당할 것인데, 이는 아직도 대법제자가 끊임없이 걸어 나오고 있기에 사악한 구세력이 그것을 이용해 계속 대법제자를 고함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한 가장 사악하고 나쁜 인간들이 아직도 행패를 부리며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원인이다.

대법제자로서는 일체 사악하고 구세력이 배치한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정념(正念)으로 사악을 깨끗이 제거하며, 중생을 구도하고, 확고하게 법을 수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고 일절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법(大法)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전화(轉化)되고 구도 받는 것은 단지 사악에 속은 중생이고, 깨끗이 제거되는 것은 사악한 생명과 사악한 구세력이며, 그 속에서 원만하는 것은 바로 대법제자이고 수립되는 것은 바로 대법(大法)의 위덕이다.

신(神)의 서약은 실행 중이다

사람들이여, 당신들은法輪功(파룬궁)을 기공(氣功)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여기지 말라. 고대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인간 세상의 각가지 직업을 모두 도(道)라고 불렀다. 그러나 노자(老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도(道)는 같지 않다고 했으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이라고 했다. 2천5백 년 전, 석가모니 부처가 법을 전할 때도 동시에 8가지 종교가 같은 세상에서 유전되고 있었으며, 불법진도(佛法眞道)는 바로 그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늘 신불(神佛)의 출현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사람을 제도할 때 꼭 부처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 사람을 제도함을 박해하는 악인(惡人)을 순식간에 소멸해 버리는 것으로 여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가 하늘에서 직접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지 않겠는가? 알아야 할 것은, 제도 받는 사람은 간고한 수련 속에서만 비로소 예전에 나쁜 짓을 저질러 조성된 죄업을 깨끗이 갚을 수 있고, 사람의 집착과 좋지 못한 일체를 버릴 수 있으며, 동시에 행위와 사상을 바르

게 되돌려야만 비로소 제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부처의 모습이 크게 나타난다면 가장 사악한 사람도 부처의 말을 들을 것인즉, 그럼 수련할 기회가 또 있겠는가? 수련해도 인정하지 않는바, 왜냐하면 수련인은 반드시 간고한 수련 속에서 죄업을 제거하고 정화(淨化)한 후에만 원만(圓滿)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사실, 일단 못 속인들이 신불(神佛)의 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되면, 기필코 인간 세상에 큰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아마 인류의 죄악이 마땅히 응보를 받아야 할 때일 것이다. 불(佛)·도(道)·신(神)을 막론하고 세인을 제도할 때 반드시 세간에 내려와 사람의 모습으로 세간에서 행하고 사람의 언어로 법리(法理)를 알려야 한다. 게다가 각자(覺者)가 세상에 내려올 때는, 대부분 세상 기풍이 날로 내려가고 죄업이 심중(深重)하거나 도덕이 폐괴한 악독한 때의 세상이었다. 제도된 사람은 일단 법을 얻어 떠나가게 마련이며, 남아있는 인간찌꺼기와 부패한 세상은 곧 도태될 것이다.

李 洪 志

2001년 5월 13일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중생을 횡멸하려는 것이다. 한 대법제자가 일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후에, 만약 진정으로 그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법(大法)에 조성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과 그 천만년을 기다렸던 것이 모두 사전(史前)의 서약(誓約)에 따라 실행될 것이다. 대법제자로서 당신의 일체는 곧 대법(大法)이 구성해 준 것이며 가장 바른 것으로서, 오로지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시정할 수 있을 뿐인데, 어찌 사악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겠는가? 어찌 사악에 그 무엇을 보증할 수 있겠는가? 설령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역시 사악에 타협한 것이라, 이는 사람 중에서도 역시 좋지 못한 행위로서 신(神)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 받는 중에서 설령 정말로 이 인피(人皮)가 벗겨진다고 해도 대법(大法) 수련자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원만이다. 반대로, 어떠한 집착과 두려운 마음도 모두 당신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운 마음일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원만할 수 없는 관(關)이자 또한 당신이 사악한 방향으로 전화(轉化)하거나 배반하게 되는 요소이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바,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일체 천재인화(天災人禍)는 이미 그곳의 중생이 대법(大法)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경고다. 만약 그들이 깨닫지 못한

대법(大法)은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다

대법제자가 사악에 잔혹한 학대를 받는 원인은 바로 그들이 대법(大法)에 대한 바른 믿음을 견지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대법(大法) 중의 한 입자이기 때문이다. 정법(正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주 중생이 모두 표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제자로서 확고한 정념(正念)이 절대로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갱신(更新)한 생명은 바로 정법 중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중의 낡은 사악세력은 그것들이 하고자 하는 일체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것들 자신이 만들어낸, 우주의 진정한 법리에 부합되지 않는 사악한 배치를 이용하여 대법(大法)과 대법제자, 중생에 대한 박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바, 대법제자의 사람 표면에서 버리지 못한 관념과 업력을 이용하여 대법제자의 정념(正念)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수련생은 박해를 받는 고통 중에서 감당해 내지 못하여, 대법제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심지어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대법(大法)에 대한 모욕이다.

사부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악한 세력은 오히려 정말로 중생을 이용하여 대법(大法)에

정치가 아니다(不政治)

‘정치(政治)’란 이 단어는 현대에서 변이(變異)된 사회의 용어로서, 역사적으로 진정한 인간 사회에는 이 용어도, 정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없었다. 인류사회에 정치가 출현할 때, 인류사회는 이미 변이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도덕관념도 그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정치를 하는 사람 자체가 바로 명리적인 욕망을 위해 그 속에 들어간 것으로, 단지 그 당시 인류사회의 도덕관념이 그래도 아주 강세였고, 그때에 생활한 사람들이 모두 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표현상에서 단지 오늘날 정치를 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표현이 없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출현부터 바로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에 확실히 일부 정의지사(正義之士)들이 있어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단지 강물에 던져진 좁쌀 한 알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악한 정권이 나라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정의로운 반항자에 대해 사람들은 그것도 정치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확한 정치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이

그 주장을 정의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필경 정치행위는 변이된 사회의 산물이다. 만약 오늘날의 변이된 인류사회가 없다면 정치의 출현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제자의 수련은 사람보다 높은 것이고 더욱 높은 경지의 진리를 장악한 수련자로서 인식 면에서 속인의 경지를 초월한 것이다. 더욱 높은 법리의 경지보다 낮은 인식은 더는 우주의 진리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대법제자는 수련 중에서 모두 명확하다. 그렇다면 속인의 정치를 정법 속에 섞어서는 더욱 안 된다. 대법제자가 감당한 마난(魔難)은 정법과 수련 중의 일이다. 사악을 폭로하고 세인(世人)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 역시 단지 대법(大法)과 제자들이 감당한 박해를 설명하는 것일 뿐,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세인을 구도하는 것이며, 그 중생의 두뇌 속에서 사악이 주입한 독해(毒害)를 제거하여 그가 장래에 대법(大法)을 적대시하여 도태될 위험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제자가 박해를 감당할 때에도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의 체현이다. 다른 한 면에서 말한다면, 신(神)·불(佛)이 어찌 사람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신(神)·불(佛)은 변이된 인류사회에 출현한 정치를 더욱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사회는 수련하기에 좋은 장소로 이는 이 속의 일체가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참가하는 외에도 모두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 해야 한다. 오로지 대법(大法)에 대해 유리하다면 모두 능동적으로 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사회에서 접촉하는 일체 사람은 모두 진상을 똑바로 알릴 대상이므로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가운데 체현해 낸 것은 대법제자의 자비와 세인(世人)의 구도이다. 대법제자마다 모두 자신의 적극성과 대법제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법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한다.

주의하라. 당신들이 얼마나 바쁘던지 모두 법 공부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원만을 향해 나아가고 대법(大法) 일을 잘하는 근본적인 보증이다.

李 洪 志

2001년 6월 17일

북유럽법회 전체 수련생에게

북유럽법회 전체 수련생에게

대법제자로서 원만(圓滿)은 수련의 결속이고, 정법(正法)은 정법기간에 역사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위대한 책임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는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체는 모두 대법(大法)을 원용(圓容)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거나 혹은 기타 대법(大法) 활동에 참가함을 막론하고 우리의 법회를 포함하여 모두 대법제자의 자비와 정법수련에서 체현되어 나온 선(善)을 표현해야 한다. 법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한다.

동시에 나는 유럽 수련생들이 북미 수련생들처럼, 수련생마다 단체 활동에 참가하는 외에도 평소에 모두 대법제자의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가운데 자신의 위덕을 수립하고 대법제자 매 한 사람의 길을 잘 걷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가운데 기다리지 말고 의지하지 말며 외재적 요소의 변화를 바라지 말라. 우리 매 사람은 모두 미래 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 사람은 단체 활동에

다. 그러므로 걸어 나와 인류사회에 대한 일체의 집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위대하며 비로소 원만할 수 있다.

李 洪 志

2001년 6월 4일

평주(評注) 2

이 문장은 아주 잘 썼으며, 특히 현재의 정황 하에서 겨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정확하게 이 문장에서 제출한 문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李 洪 志

2001년 6월 5일

역시 모두 대법(大法)을 위해 존재한다. 대법(大法)이 마난(魔難) 중에서 일체를 원만하게 했을 때, 대법(大法)을 박해한 사악은 모두 결속 짓게 될 것이다.

李 洪 志

2001년 6월 14일

주(注): 본문은 대법제자가 2001년 6월 5일 명후이 왕에 발표한 「악을 제거하면서 정법수련을 잊지 말자」라는 문장에 대한 평어(評語)이다.

한 무리를 의념(意念)으로 지휘할 수 있다. —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사악한 나쁜 사람은 곧 무엇을 할 것이다.

층차는 心性(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공능을 사용할 때 정념(正念)이 강해야 한다. 마음속에 사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공능을 운용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는 등 불량한 심리는 모두 공능의 효과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교란할 수 있다.

원만(圓滿)은 대법제자의 수련 결속이며, 정법(正法)은 대법제자의 사명이다. 원만이란 대법제자를 두고 말한다면 단지 회귀(回歸)하는 시간의 문제지만, 정법은 미래에 남겨주는 것이다. 부동한 층차의 중생이 보게 될 우주의 미래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다. 현재 인류의 매 하루는 모두 대법(大法)의 요구에 의해 배치된 것으로, 인간 세상에서 대법제자의 표현은 바로 역사에 남겨주는 것이다. 미래의 부동(不同)한 역사 시기의 우주 중에서 만일 대법(大法)을 파괴하는 일이 나타나거나 생명이 부동하게 표현될 때, 대법(大法)이 어떻게 정법(正法) 하며, 어떻게 일체를 원용불파(圓容不破)하게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대법제자가 하는 일체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며, 지금의 삼계(三界) 내의 일체

발정념(發正念) 두 가지 수인



단수입장(單手立掌)



연화수인(蓮花手印)

法正乾坤, 邪惡全滅.

法正天地, 現世現報.

2001년 6월 12일

무엇이 공능(功能)인가

공능(功能)은神通(神通)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인은 초능력(超能力)이라고 부른다. 공능이란 사실 생명의 본능이다. 층차가 높을수록 본능은 더욱 충분히 발휘해 낼 수 있으며, 반대로 층차가 낮을수록 본능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혹은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주의 최고층에서 우주의 최저층에 이르기까지,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생명과 그것이 존재하는 경지에 포함된 일체 물질의 비중이 더욱 크고, 입자 과립이 더욱 크며, 생명의 중력 부하도 더욱 크기 때문이다.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생명의 본능(公能)이 물질 자체에 의해 억제됨이 더욱 많고 더욱 무거우며 더욱 작용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곧 층차가 낮을수록 능력이 더욱 작아지는 원인을 조성한다. 인류 공간에 이르면, 생명의 일체 본능은 이미 모두 덮여 감추어져 본능(公能)은 작용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으려면 완전히 물질로 구성된 육체노동으로써만 비로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인류는 물질에 의해 완전히 매몰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진상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인류의 공간은 미혹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수련인에 대하여 말한다면 수련한 층차가 높을수록 능력이 더욱 크다. 이는 우주의 층차를 더욱 많이 돌파할수록 생명이 물질에 대한 중력 부하가 더욱 작고 더욱 가벼우며 본능(公能)이 더욱 강하고, 풀려나오는 능력이 더욱 많고 더욱 전면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설법 중에 말한 적이 있다. 대법(大法) 수련에서 공능이 가장 전면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법제자는 더욱 높은 층차까지 수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돌파한 층차가 높을수록 물질로부터 풀려나오는 것이 많아져 본능(公能)을 충분히 체현해 낼 수 있다. 대법제자는 정법(正法) 중에서 이미 충분히 공능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예컨대 정법 중에서 정념(正念)이 아주 순수할 때면 공능의 운용(運用)이 아주 전면적이다. 또한, 많은 제자는 모두 정념(正念) 중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무엇을 쓰려고 하면 무엇이 있다. 예컨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나쁜 사람을 그 자리에 고정하려 한다면, 다만 한 마디 “꼼짝마(定).”하고 말하거나,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고 하거나, 한 무리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기만 하면 틀림없이 움직이지 못한다. 나중에 “풀려라.”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곧 해제된다. 사실 인성이 없는 그러한 사악한 무리, 예컨대 사람을 때려죽이고 여성 대법제자를 강간하는 짐승보다 못한 나쁜 인간 혹은 그러한 우두머리의 사악